

한국과 베트남의 상호이해 웨비나 시리즈 2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하노이국립인문사회과학대학교, 호치민국립인문사회과학대학교

베트남 유학생의 확대와 한국사회의 변화

김도혜

2020년 현재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156,695명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전년 대비 2.3% 정도 감소한 숫자이기는 하지만, 6년째 계속 10만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베트남 유학생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데 중국 유학생의 비율이 2012~2019년 사이에 66%에서 44%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베트남 유학생의 비율은 2.8%에서 23.4%로 급증했다. 또한 베트남 유학생의 경우 중국 유학생에 비해 서울 이외 중소도시 대학에서 공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인데, 2019년 현재 중국 유학생의 절반이 서울권 대학에 재학 중인 반면, 베트남 학생은 20.6%에 불과하다. 이 발표는 한국의 지방 사립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베트남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지방 사립대학으로 진학하는 베트남 유학생의 수가 확대되는 원인을 양 국가를 중심에 놓고 분석하고 이러한 양적 팽창이 한국 사회에 불러 일으키고 있는 변화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베트남) 유학생을 '인재'인 동시에 '잠재적 불법 노동자'로 바라보는 이중적 시선이 존재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실제 베트남 유학생들이 학업과 노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베트남) 유학생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시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적해보고자 한다.

김도혜는 필리핀의 한인 이주자들을 주제로 박사논문을 작성하여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에서 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6년 필리핀국립대학교 아시아센터에서 선임 강사로 일한 바 있으며, 학위 후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면서 지방대학의 베트남, 몽골 유학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재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조교수로 일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한국 지방 대학 유학생의 노동 경험 연구: A 대학 베트남, 몽골 유학생을 중심으로," "환영할만한" 은퇴이주자의 탄생: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의 비자정책을 중심으로," "Geographical Imagination and Intra-Asian Hierarchy between Filipino/as and South Korean Retirees in the Philippines" 등이 있다.

일시: 2021년 06월 15일 (화), 10:30-12:30

장소: Zoom Meeting & YouTube